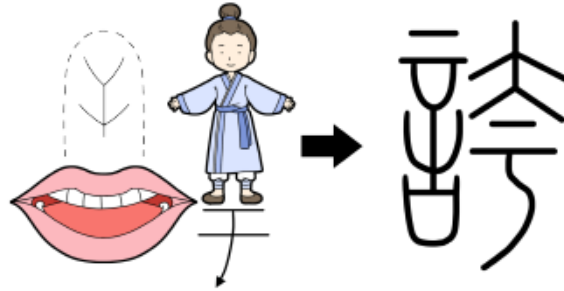


3(2)
-
41

회의문자 ①



誇

자랑할
과:

誇자는 '자랑하다'나 '뽐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誇자는 言(말씀 언)자와 夸(자랑할 과)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夸자는 몸을 크게 벌려 자랑하거나 자만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본래 '자랑하다'라는 뜻은 夸자가 먼저 쓰였었다. 하지만 후에 이것이 말과 관련된 글자임을 뜻하기 위해 言자가 더해지면서 지금은 誇자가 '자랑하다'나 '뽐내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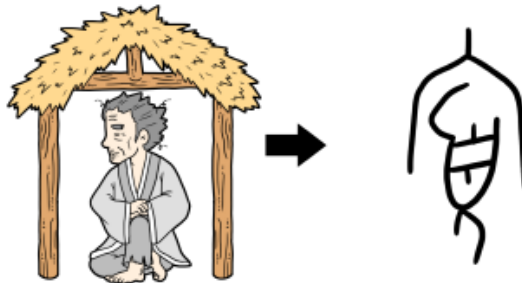
소전

誇

해서

3(2)
-
42

상형문자 ①



寡

적을 과:

寡자는 '작다'나 '약하다', '과부'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寡자는 宀(집 면)자와 夏(여름 하)자의 변형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寡자의 금문을 보면 집안에 눈빛이 처량한 사람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남편 없이 집안에 홀로 앉아있는 노인을 표현한 것이다. 寡자는 이렇게 처량한 노인을 그려 '과부'나 '약하다'라는 뜻을 표현했다. 참고로 고대 중국의 왕들은 자신을 낮춰 부르는 말을 寡人(과인)이라고 했는데, 이는 寡자에 '작다'나 '적다'라는 뜻이 있었기 때문이다.

寡

금문

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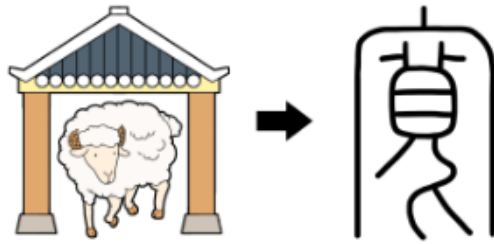
소전

寡

해서

3(2)
-
43

형성문자 ①



寬

너그러울
관

寬자는 '너그럽다'나 '관대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寬자는 宀(집 면)자와 寬(산양 환)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寬자는 숫 산양을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환→관'으로의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寬자는 본래 넓은 크기로 지어졌던 방의 일종을 뜻했던 글자였다. 그러나 후에 사람의 심성이나 배포를 넓은 방에 비유하게 되면서 '너그럽다'나 '관대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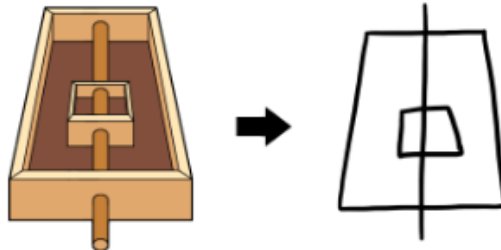
소전

寬

해서

3(2)
-
44

상형문자 ①



貫

꿨 관(·)

貫자는 '꿨다'나 '꿨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貫자는 冂(꿨을 관)자와 貝(조개 패)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冂자는 물건을 고정하기 위해 긴 막대기를 꿨은 모습을 그린 것으로 '꿨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래서 본래 '꿨다'라는 뜻은 冂자가 먼저 쓰였었다. 그러나 후에 구멍에 줄을 엮어 쓰는 엽전이라는 화폐가 유통되기 시작하면서 소전에서는 冂자에 貝자를 결합한 貫자가 '꿨다'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

冂

갑골문

冂

금문

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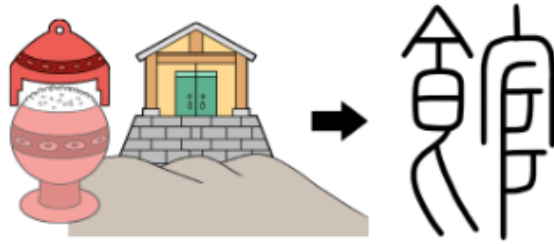
소전

貫

해서

3(2)
-
45

회의문자 ①



館

館자는 '객사'나 '관사'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館자는 食(밥 식)자와 官(벼슬 관)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官자는 '높은 곳에 지어진 집'이라는 의미에서 나랏일을 하던 사람들이 기거하던 '관사'를 뜻했다. 그래서 이전에는 官자가 '객사'나 '관사'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그러나 후에 官자가 나랏일을 하던 '관리'나 '벼슬'을 뜻하게 되면서 소전에서는 여기에 食자를 더한 館자가 '관사'라는 뜻을 대신하게 되었다.

집 관

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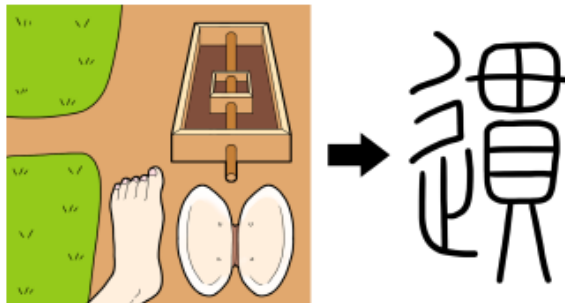
소전

館

해서

3(2)
-
46

회의문자 ①



慣

慣자는 '익숙하다'나 '버릇'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慣자는 心(마음 심)자와 貫(뚫 관)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貫자는 사물을 고정하기 위해 긴 막대기를 꿰은 모습을 그린 것으로 '꿴다'라는 뜻을 가지고는 있다. 습관이란 오래도록 익숙한 것이기에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慣자는 이렇게 무언가를 고정하는 모습을 그린 貫자에 心자를 결합해 '고정(貫)되어 있는 마음(心)' 즉, 익숙해진 '습관'이나 '버릇'을 뜻하게 되었다. 사실 소전에서는 遺(쉬엄쉬엄 갈 착)자가 들어간 遺(다닐 관)자가 '익숙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었지만, 해서에서는 慣자가 뜻을 대신하고 있다.

익숙할
관

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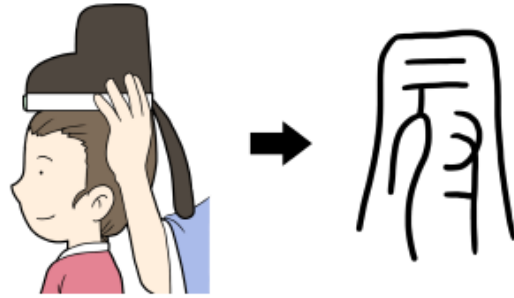
소전

慣

해서

3(2)
-
47

회의문자 ①



冠

갓 관

冠자는 '갓'이나 '관', '쓰다', '관례'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冠자는 冫(뒹을 먹)자와 元(으뜸 원)자, 寸(마디 촌)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冠자는 머리에 모자를 씌우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모자'란 관직에 오른 사람이 쓰던 '감투'를 뜻한다. 옛날에는 관직에 있지 않더라도 감투를 쓸 기회가 한 번쯤은 있었다. 바로 결혼식이었다. 그래서 冠자는 '관'이나 '관례'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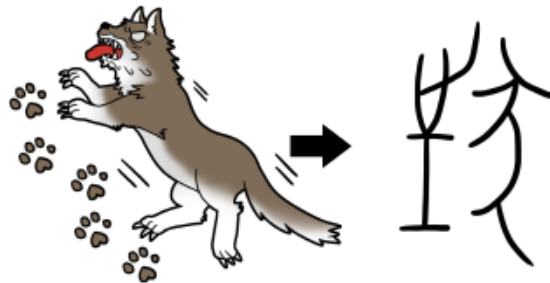
소전

冠

해서

3(2)
-
48

회의문자 ①



狂

미칠 광

狂자는 '미치다'나 '사납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狂자는 犬(개 견)자와 王(임금 왕)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狂자는 본래 광견병에 걸린 개를 뜻했던 글자였다. 그래서 갑골문에서는 止(발 지)자와 犬자를 함께 그려 개가 미쳐 폭주한다는 뜻을 표현했었다. 이후 소전에서는 𡩇(무성할 왕)자가 발음역할을 하다가 해서에서는 王자가 발음을 대신하게 되면서 지금의 狂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狂

갑골문

狂

금문

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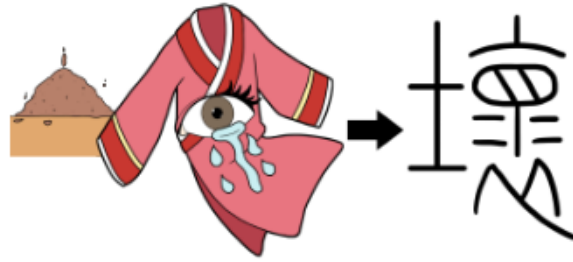
소전

狂

해서

3(2)
-
49

형성문자 ①



壞

무너질
괴:

壞자는 '무너지다'나 '허물어지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壞자는 土(흙 토)자와 壞(품을 회)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壞자는 옷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품다'나 '위로하다'라는 뜻이 있다. 이렇게 우는 모습을 그린 壞자에 土자가 결합한 壞자는 흙이 무너지는 모습에 슬퍼하는 모습으로 그려졌다.

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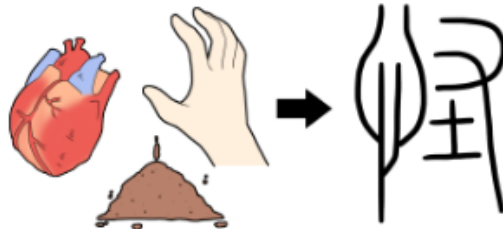
소전

壞

해서

3(2)
-
50

형성문자 ①



怪

괴이할
괴(·):

怪자는 '기이하다'나 '괴상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怪자는 心(마음 심)자와 冎(힘쓸 골)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冎자는 손으로 흙을 쌓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힘쓰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冎자가 '기이하다'라는 뜻의 怪자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알 수 없다. 발음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기에는 발음차이도 크고 '괴이하다'와 흙을 쌓는 것과의 의미도 연결되지 않는다. 혹시 흙더미 위로 손이 올라와 모습을 그린 冎자에서 괴상함이 연상됐던 것은 아닐까?

冎

소전

怪

해서